

류현진 · 김광현 · 추신수 · 최지만 ‘예비명단’ 포함

메이저리그 구단, 사무국에 60인 제출...개막전 30명 추려

2020시즌을 앞둔 코리안 메이저리거 4명 모두 각 소속팀 예비명단에 포함되며 본격적인 개막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메이저리그 구단은 29일(한국시간)까지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2020시즌을 치를 60인의 예비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했다. 각 구단은 이 중 30명을 추려 2020시즌을 치르게 된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에이스 류현진(33)을 비롯해 총 58명의 선수를 예비명단에 등록했다. 류현진은 총 33명의 투수 중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다. 토론토는 포수 5명, 내야수 12명, 외야수 8명으로 예비명단을 채웠다.

류현진은 2019시즌 LA 다저스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로 활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오프시즌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달러에 계약하며 에이스 자리를 꿰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캐나다행이 불투명했던 토론토 선수단은 홈구장으로 이동해 시즌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지 매체는 선수들에게 캐나다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구단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2020년 메이저리그에 새롭게 도전장을 던진 김광현(32)도 소속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예비명단(44명)에 포함됐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조만간 추가로 예비명단에 등록할 선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800만달러에 계약한 김광현은 선발 로테이션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김광현

은 코로나19 중단 전 4번의 시범경기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에는 선발 자원이 많아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투명하다.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와 최지만(29·탬파베이)도 각각 소속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는 외야수 중 한 명으로 예비명단에 올랐다. 지난 2014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7년 간 총액 1억3000만달러에 계약한 추신수는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다. 지난해 지명타자와 코너 외야수로 출전하며 타율 0.265 24홈런 61타점의 성적을 올렸다.

텍사스는 오는 7월4일부터 홈 구장인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공식 훈련에 돌입한다.

최지만은 2019시즌 탬파베이에서 12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19홈런 63타점으로 커리어 하이 성적을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막이 늦어진 사이 최지만은 국내에 머물며 시즌을 준비하다 지난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탬파베이는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와 스프링캠프 홈구장 샬럿스포츠파크 두 곳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최지만 등 주전급 선수들은 트로피카나필드에서 2020시즌 개막을 준비한다.



홍상삼, KIA에서 ‘환골탈태’

6월 10경기 중간계투 출전...평균자책점 2.89 맹활약
“공황장애로 고질적 제구 난조...무관중 경기가 도움”

6월 1군에 올라와 KIA 타이거즈 bullpen에서 맹활약 중인 우완 홍상삼(31)이 최근 호투 비결에 대해 “자신감”이라고 밝혔다.

2008년 두산에 입단한 홍상삼은 2019 시즌까지 두산에서 뛰었다. 빠른 공은 장점이지만 고질적인 제구 난조가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홍상삼은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두산에서 방출된 홍상삼은 KIA에서 다시 도전을 이어갔다. 그리고 6월 마침내 1군에 올라와 10경기에서 3홀드(2패) 평균자책점 2.89로 활약 중이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도 “홍상삼은 다양한 역할을 모두 잘 해주고 있다”며 만족해했다.

2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도 홍상삼은 팀이 0-1로 끌려가던 7회말 등판했다. 선두타자 서건창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김혜성을 삼진으로 처리한 뒤 이정후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이어 박병호와의 승부에서는 과감하게 몸 쪽으로 공을 던져 루킹 삼진을 기록했다.

홍상삼은 최근 활약의 비결로 자신감을 꼽았다. 홍상삼은 “맷 윌리엄스 감독님과 서재용 코치님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신다. 이전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였는데 코치님이 ‘괜찮다. 자신있게 하라’고 해주시는 것이 크다. 마운드에 자신있게 올라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을 들어도 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워낙 바닷인 상태여서 많이 힘들었다”며 “새로 팀을 옮기면서 리셋된 것 같다. 자신감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팬들이 있는 상태였다면 의식이 안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무관중이 지금의 저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다”면서도 “경기를 하고 자신감이 생기다보면 팬들이 오셔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1

‘황희찬 1골1도움’ 잘츠부르크, 리그 7연패

하르트베르크 3-0 완파

황희찬이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소속팀 잘츠부르크의 대승을 견인했다.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7연패 대업을 달성했다.

황희찬은 29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 불 아레나에서 열린 하

르트베르크와의 2019-20 분데스리가 챔피언십 8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3-0 완승에 힘을 보탤었다.

황희찬은 후반 8분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몸을 던지는 헤딩 슈팅으로 팀의 추가 골을 넣었고 6분 뒤 자신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나온 공을 골문 앞에서 있던 파트손 다카에게 패스, 팀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더스틴 존슨,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우승

통산 21승 · 역대 공동 30위
김시우 · 노승열 공동 11위

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1승째를 달성했다.

존슨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 리버 하이랜드(파70·6481야드)에서 열린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총상금 74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존슨은 최종합계 19언더파 261타로 2위 케빈 스트리플먼(미국·18언더파 262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9년 2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멕시코 챔피언십 이후 약 1년4개월 만의 우승이다.

지난 2008년부터 13시즌 연속 우승을 추구한 존슨은 어느덧 PGA투어에서 21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존슨은 역대 최다승 부문에서 데이비스 러브3세(미국) 등과 함께 공동 30위가 됐다.

지난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6위까지 밀려났던 존슨은 이번 우승으로 다시 톱5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4번홀(파4)과 5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다. 7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8번홀(파3)과 9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했다.

10번홀(파4)에서는 2번째 샷이 그린에 오르지 못했으나 페어웨이에서 언덕을 넘어가는 어려운 퍼팅으로 버디를 추가했다. 13번홀(파5)에서 보기로 주춤했지만 14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냈다.

16번홀(파3)을 앞두고 경기는 낙퇴 주의 보로 인해 약 1시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재개된 16번홀(파3)에서 존슨은 보기를 범하면서 2위 스트리플먼과의 격차 가 1타 차로 좁혀졌다. 위기였는데, 그러나 존슨은 나머지 두 홀에서 모두 파를 잡아내 우승

을 확정했다.

케빈 나(미국)는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는데 성공. 최종합계 16언더파 264타 단독 5위로 대회를 마쳤다. 투어 재개 후 찰스 슈와브 캘린지에서 컷탈락했던 케빈 나에 2번째 출전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김시우(25·CJ대한통운)와 노승열(29)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과 함께 공동 11위에 올랐다. 이듬해 톱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노승열은 군 전역 후 최고 성적을 올리면서 부진 탈출에 성공했다. 김시우도 시즌 첫 20위 이내의 좋은 성적이다.

강성훈(33)과 안병훈(29·이상 CJ대한통운)은 7언더파 273타로 공동 46위, 임성재(22·CJ대한통운)는 5언더파 275타로 공동 58위에 머물렀다. 2대회 연속 부진했지만 임성재는 페덱스 랭킹 3위 자리를 지켰다.

강진군청,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 전종별 입상

옴니움 포인트, 제외경기서 나란히 금메달



강진군청사이클선수단 경기 모습

강진군청 사이클 선수단이 2020년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전종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경춘 감독과 정점식 코치가 이끄는 사이클 팀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양양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대회 첫째 날 신동인, 황병연, 배승민, 안희성이 나선 단체출발 4km에서 2위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옴니움 포인트 금메달, 제외

경기 금메달, 스크래치 은메달, 옴니움 종합금메달, 개인출발 4km 은메달을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강진군청사이클선수단은 전국체육대회 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나주 사이클경기장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트랙코스 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6회 3·1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취소 및 전지훈련 중단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출전 선수들을 비롯 감독 및 코치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기량을 갈고 닦아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린 사이클 대회다. 국내 사이클 시즌 개막전은 지난 3월 강진에서 3·1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5월까지 각종 대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번 양양 대회 또한 도로 종목은 8월로 연기해 진행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제20회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성료

코로나 방역 철저 속 강진군 17개 분회 30개팀 240여 명 참가

강진군이 지난 26일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성료했다. 이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방역용 작성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 활동 속에 진행했다.

관내 30개 팀 240명의 선수 및 심판들이 참여했다.

대회에 앞서 매년 군수배 게이트볼 행사 시 강진군 출신 체육 꿈나무들에게 용품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지원 대상자는 박대균, 김찬영, 윤혁준 학생이 선정돼 용품을 전달받았다.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의 우승은 노인대학교팀에서 차지했으며 신전 A팀이 준우승을, 공동 3위는 도암A팀, 칠량A팀, 장려상은 마량A팀, 사초리A팀이 차지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방역 수칙 준수로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협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우수 체육 청소년에게 체육 용품을 전달하는 좋은 사례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도민 51.7% “올림픽 취소나 재연기”

일본 수도 도쿄도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7-9월로 연기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재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쿄신문이 내달 7일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26~28일 사이를 간 도쿄도내 유권자 10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27.7%가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내후년 이후로 재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4.0%나 됐다.